제7호 · 2026. 11. 16.

전파·통신 국내외 동향

새 망을 켜기 전에, 끊겼을 때를 먼저 묻다

2026년 11월 둘째 주 (11. 9. – 11. 15.)

이번 호의 숫자

2회
도코모 5G SA 전국 장애, 엿새 사이 (11. 5.·11. 11.)
01 · 5G SA

첫 직권조사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침해사고 직권조사
02 · 보안

75점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선
03 · 전력

1,480억엔
라쿠텐-AST 합작사 일본 정부 지원 한도
04 · 위성

5G SA	12월 SA 개시 앞에서 — 도코모의 두 번 장애, 슬라이싱과 망중립성	02
보안	첫 직권조사와 잇단 유출 — 개정 망법은 어디까지 닿나	03
전력	데이터센터 전력 — 입지 기준은 시행되고, 비용 분담은 논의 중	04
위성	D2D, 돈과 주파수는 누가 맡나 — 일본·미국·유럽의 선택	05
주파수	멕시코는 사용료를 낮추고, 일본은 재면허를 손본다	06
기타	ITU 지도부 선거 · 국내외 소식 · 다가오는 일정	07

디지털미래연구소 Digital Future Institute
dfi.re.kr

이순환
soonlee@dfi.re.kr

국내 일본 영국 · 체코

SA 개시 준비(정부 · 사업자 발표) · 도코모 장애(회사 공지) · 슬라이싱 기준(12월 예정) 2026. 11. 9. - 13.

12월 SA 개시 앞에서 — 도코모의 두 번 장애, 슬라이싱 기준과 망중립성

SKT와 LG유플러스가 12월 첫째 주 5G 단독모드(SA)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달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용 기준을 공개한다. 연내 SA 전환은 주파수 재할당 조건이기도 하다. 그 사이 일본 최대 이통사 도코모의 SA망은 엿새 사이 두 번 전국에서 멈췄다. SA가 본격화되면 망의 안정성뿐 아니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기준도 함께 중요해진다. 영국에서는 이통사가 "망중립성 규칙 때문에 결제 트래픽을 우선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규제기관은 "이미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 — 12월에 몰린 일정

- **SA 개시**: SKT·LGU+ 12월 첫째 주 서비스 시작 준비(11. 9. 보도). SKT는 체험단, LGU+는 스포츠 중계 중심. KT는 음성 등 일부에서 이미 SA 운용
- **슬라이싱 기준**: 과기정통부 "12월 네트워크 슬라이싱 이용 기준·요건을 확정해 공개". 망 차별 금지 가이드라인 기조는 유지
- **재할당 조건**: 2026년 재할당 때 '연내 5G SA 전환'이 조건으로 붙음. 이행 기한 12. 31. 부총리는 10월 국감에서 미이행 시 제재를 언급
- **상용 사례**: KT, 부산불꽃축제 관제에 SA 슬라이싱 적용(11. 6.)

일본 — 엿새 사이 두 번

- **11. 5.** 도코모 5G SA 전국 장애(11:18~익일 01:20, 약 14시간), 최대 158.7만 명. 코어 교환기 1대의 메모리 이상에 가입자 DB 갱신 작업이 겹쳐 진단이 늦어짐(제6호)
- **11. 11.** 다시 전국 장애(10:34~19:17, 약 9시간). SA 가입자의 음성·데이터·문자 이용 곤란, 4G·NSA·MVNO·긴급통화는 정상. 원인은 SA 가입자를 수용하는 교환기의 과부하(輻輳), 해킹 흔적 없음(회사 최종 공지). 우회 방법은 단말을 4G로 바꾸는 것
- 11. 5. 장애의 근본 대책 시한(11. 13.)까지 도코모·총무성 공표 없음. 총무성은 11. 12. '가상화 망·제3자 설비 이용'의 기술 기준 답신을 받고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힘

영국 — 결제 트래픽과 망중립성

- **VMO2**(11. 11.): "망중립성 규칙 때문에 행사장 카드결제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지 못한다. 결제 실패로 상인들이 연간 약 1,000만 파운드를 잃는다"
- **Ofcom**: "현행 규칙에서도 '특수 서비스'로 가능하다. 규칙을 바꾸려면 DCMS(문화디지털부) 몫". 영국은 EU 개방인터넷 규칙을 이어받아 특수서비스 예외를 둠
- O2 체코, 체코 첫 전국 5G SA 커버리지 달성(11. 12.)

국내 5G SA 도입 전에 확인할 점

- SA 코어가 멈췄을 때 **4G LTE나 5G NSA로 자동 전환**되는지, 코어 작업과 장애 대응이 겹치지 않게 **동시 작업 제한**을 두는지
- SA 장애의 보고·고지·손해배상 기준(전기통신사업법, 이용약관)이 NSA 기준과 같은지
- 슬라이싱 기준에서 '특수 서비스'(결제·관제·중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그 요금을 어떻게 볼지

표 1. 5G SA 운영 위험과 제도 — 일본의 사례와 한국의 현재

항목	일본(11. 5. · 11. 11. 장애)	한국(12월 개시 전)
장애 범위	SA 가입자만, 4G·NSA·MVNO 정상	SA 가입자 수 적어 초기 영향 제한적, 확대 시 동일 구조
원인	코어 장비 이상 + 동시 작업(5일), 교환기 과부하(11일)	코어 작업 기준은 통신재난 관리계획에 명시 없음
규제기관 대응	근본 대책 시한 설정, 가상화 설비 기술 기준 정비	12월 슬라이싱 기준 공개, SA 전환은 재할당 조건
망중립성	—	가이드라인의 '특수서비스' 범위를 슬라이싱 기준이 사실상 정함

평가 ① SA 전환의 안정성

국내 SA 개시는 재할당 조건이 정한 일정이다. 그래서 '언제 켜느냐'보다 '끊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정해 둘 필요가 있다. 도코모 사례가 보여 준 것은 두 가지다. SA 핵심 교환기에 문제가 생기면 전국의 SA 가입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두 번 모두 4G·NSA 가입자는 정상), 복구 작업과 정기 작업이 겹치면 진단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국내는 아직 SA 가입자가 적어 초기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재할당 조건 이행을 점검할 때 **전환 완료 여부와 함께 자동 전환·작업 기준 같은 안정성 지표**를 보는 것이 맞다.

평가 ② 슬라이싱과 망중립성

슬라이싱 기준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특수서비스'가 실제로 무엇인지 처음 정하는 문서가 된다. 영국의 논쟁은 규칙 자체보다 **특수 서비스로 인정받는 절차와 요금**이 쟁점임을 보여 준다. 결제·관제·중계처럼 품질 보장이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 대가를 일반 이용자 요금과 어떻게 구분할지를 12월 기준이 답해야 한다.

출처: 전자신문(2026.11.09) SA 개시·슬라이싱 기준 · 아이뉴스24(10.23) 부총리 국감 답변 · 전자신문(11.06) KT 슬라이싱 · ケータイ Watch(11.05-06, 11.11) 도코모 장애·복구 · 総務省(11.12) IP망 설비 기술 조건 답신 · ISPreview(11.11) VMO2·Ofcom · Telecompaper(11.12) O2 체코

국내 일본 미국 헝가리 직권조사 착수(과기정통부) · 유출 공지(각 사) · 송치·체포(수사기관)

2026. 11. 9. - 15.

첫 직권조사와 잇단 유출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어디까지 닿나

과기정통부가 10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처음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사업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자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같은 주 금융보안원, 카카오워크, 조폐공사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AI 솔루션 공급사에서 잇따라 유출이 알려졌다. 일본과 헝가리에서는 차량에 가짜 기지국을 싣고 피싱 문자를 뿌린 피의자가 각각 송치·체포됐다.

한국 — 새 권한의 첫 사용

- **첫 직권조사(11. 11.)**: GS건설은 10. 29. 침해사고를 신고했지만 자체 분석을 이유로 KISA 조사에 동의하지 않음.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직권조사 착수. 중대 사고로 판단되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 **금융보안원(11. 10.)**: 금융사 제출 자료 일부 유출. 보안 감독 기관 자체가 뚫림. 금융위 집계 9. 30. 이후 37개사 40건, 유출 47.3만 건
- **카카오워크(11. 13.)**: 메일 원본·첨부·암호화된 채팅까지 유출 가능성. 규제기관 대응은 미보도
- **조폐공사 '착'(11. 14.)**: 3,083명 조회. 계좌번호·**CI(연계정보)**·암호화 카드번호 포함. **모두의창업 AI 공급사**: 2만 28명 유출, 나머지 49개 공급사 긴급 점검. KB캐피탈 1,800여 명
- **북한 라자루스**: PHP 취약점으로 10개국 216대 공격, 한국 30대(정부·금융·통신·인프라). 성공 여부 미확인

한국 — 제도 쪽 움직임

- 방미통위 **이용자 보호 평가 개편**(11. 13.): 가입자 10만 명 이상 전기통신사업자와 **월 이용자 500만 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대상 정량화, 기준 사전 공개, 2027년 평가부터
- KISDI, AI 에이전트 이용자 고지 8개 항목 가이드 초안. "AI가 임의로 결제해도 사업자가 1차 책임"
- 개인정보위, 앤트로픽 '클로드 엔터프라이즈' 유출 건 정식 조사

해외 — 가짜 기지국, 공급망

- **일본(11. 9.)**: 차량 탑재 가짜 기지국으로 통신 방해·피싱 문자, 중국 국적 31세 송치. 전파법 제4조(무허가 무선국)·제108조의2(**중요 무선통신 방해**) 적용
- **헝가리(11. 11.)**: 같은 수법(SMS Blaster)으로 Yettel망 교란, 27세 중국 국적 체포
- **일본 총무성(11. 13.)**: 온라인 판매 무전기·드론 59개 모델이 미약 무선국 기준 초과, 판매자·쇼핑몰에 판매 중단 요청
- **美 FCC(11. 13.)**: 로보콜 추적 요청에 24시간 내 답하지 않은 음성 사업자 8곳 망 연결 차단

표 2. 이번 주 사고와 사건별로 적용된 조사·대응 수단

사안	사례	쓰인 수단	남은 질문
조사 비협조	GS건설	개정 망법 직권조사(심의위 거침)	직권조사 요건·결과 공개 범위
공급사·SaaS 경유	모두의창업 AI 공급사, 카카오워크, 금융보안원	망법 신고 + 개인정보보호법 통지	정부 지원 솔루션의 보안 인증 요건
CI 포함 유출	조폐공사 '착'	개인정보보호법 통지	CI 발급·이용 범위 축소
가짜 기지국	日 송치, 헝가리 체포	日 전파법 무허가 무선국·중요통신 방해죄	국내 전파법 처벌 수위, 다운그레이드 공격 탐지 의무
불법 무선기기	日 59개 모델	시험구매 → 쇼핑몰 판매 중단 요청	적합성평가 사후관리에 오픈마켓 의무 명시

평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직권조사가 처음 쓰였다. 기업이 "자체 분석 중"이라며 조사를 거부해도 정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이번 주 사고의 다수는 통신사가 아니라 **공급사·SaaS·공공 플랫폼**에서 났고, 그중 정부가 이용료를 지원한 AI 솔루션도 있었다. 직권조사 권한만으로는 닿지 않는 영역이다. 정부 지원 솔루션의 보안 인증 요건, 공급사 침해 때 고객사 통지 기준, CI가 섞인 유출의 처리 기준이 다음 과제다.

해외 사례는 통신 쪽 집행 수단을 보여 준다. 일본은 가짜 기지국에 전파법의 '중요 무선통신 방해죄'를 적용했고, 온라인 판매 무선기기는 시험구매로 걸러 쇼핑몰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국내도 KT 소액결제 사건에서 불법 펨토셀이 쓰였다. 전파법상 무허가 무선국 처벌이 가짜 기지국 스미싱에 충분한지, **적합성평가 사후관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둘지 검토할 때 바로 가져올 사례다. 방미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를 이용자 보호 평가에 넣기로 한 것도 같은 방향이다.

국내 미국 말레이시아 · 싱가포르 · 일본

고시 시행(11. 16.) · 상원 절차 표결(조항 심의 전) · 기업 발표(11. 4. 배경) 2026. 11. 9. - 16.

데이터센터 전력, 입지 기준은 시행되고 비용 분담은 논의 중 —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 美 상원 절차 표결, 구글의 약속

11월 16일부터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수도권 데이터센터는 75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전력 이용 밀도에 따라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상원은 대형 데이터센터의 계통 증설 비용 부담을 담은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 진행을 73:25로 의결했다. 비용 부담 조항의 확정 여부는 후속 심의에 달렸다. 앞서 11월 4일 구글은 말레이시아 150억 달러 투자에서 전력 사용료와 계통 연결에 필요한 직접 인프라 비용을 스스로 내겠다고 밝혔다. 국내 통신사는 GW 단위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한국 — 평가 시행과 커지는 계획

- **전력계통영향평가(11. 16.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수도권 통과 기준 75점 이상, 그 외 70점 이상. '전력이용밀도' 감점 항목 신설. 결과 통보서 양도 불가, 유효기간 1년(1회 연장). 대상 설비 용량 기준은 첨부 미확인
- **KT(11. 10.)**: AIDC 200MW 투자 의사결정 완료, 연내 60MW 추가. 2031년까지 1GW(임차 80%·자체 20%). 현재 운영 152MW, 파이프라인 30개소 1,411MW
- **예산**: 과방위, 2027 과기정통부 예산 약 1.3조 원 증액 의결(AI 에이전트 300억, AIDC 부품·클라우드 1,155억 등). 예결위 조정소위 11. 16.~, 법정기한 12. 2.
- **GPU 공급**: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임 뒤 과기정통부 긴급 점검. 정부는 점검 결과 "GPU 26만 장 공급 계획에 변동 없음"이라고 밝힘(엔비디아의 별도 확인은 미보도). SKT·리벨리온·엔비디아 GPU+NPU 랙 공동 개발
- **발전 설비**: 빅테크의 가스터빈 수요로 국내 LNG 전환 사업 31%가 터빈 미확보(11. 13.)
- IITP '2027 10대 이슈': AIDC 병목이 칩에서 **전력·규제**로 이동

해외 — 비용 분담 논의와 기업 약속

- **美 상원(11. 9.)**: H.R. 2347 심의 개시를 위한 토론 종결 73:25. S. 5653은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증설 비용 부담과 일반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제안. 조항 확정은 후속 심의에 달림
- **구글 말레이시아(11. 4. 발표, 배경)**: 2027~28년 150억 달러 투자, 청정에너지 1GW 이상 추가. **전력 사용료와 직접 계통 연결 비용 자부담**
- **싱가포르**: 아시아 택소노미 2판에서 데이터센터 '녹색' 기준을 PUE와 WUE(물 사용) 연동식으로. 10월 디지털인프라법은 3MW 이상 면허제(2027 시행). 노르웨이는 계통 예약 중단·면허제 검토
- **소프트뱅크그룹**: 美 오하이오 AI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 조달 변경으로 5,972억 엔 손실(상반기 순손실 7,680억 엔)
- OpenAI는 11. 5. 전력 비용 전액 부담 약속을 재확인(제6호). NYU 연구 "데이터센터는 재산세·지역 인프라로 기여해야"
- 포스테-TIM, AI 데이터센터 20MW에 6억 유로 공동투자 펀드. DT 뮌헨 AI 팩토리 20MW 확장

표 3.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을 누가 지는가 — 제도 · 법안 · 기업 약속 비교

주체	규칙 · 약속	단위 · 기준	상태
한국	전력계통영향평가, 수도권 차등 통과점수·밀도 감점	시설별 평가, 1년 유효	11. 16. 시행
미국(연방)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증설 비용 부담 확대 + 지역사회 지원	관련 법안 심의	H.R. 2347 심의 절차 표결 73:25, 조항 미확정
구글(말레이시아)	전력 사용료·직접 계통 연결 비용 부담, 청정에너지 1GW 이상	기업 약속	11. 4. 발표
싱가포르	PUE·WUE 연동 녹색 기준, 3MW 이상 면허	금융 기준 + 면허	택소노미 발표, 법 2027 시행
소프트뱅크	전력 설비 조달 변경	—	5,972억 엔 손실 반영

평가

시범운영을 거친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 고시가 11월 16일 시행됐다. 수도권 75점 기준과 밀도 감점은 수도권 밖 입지를 유도한다. 미국의 '대형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증설 비용을 더 낸다'는 원칙은 아직 법안 단계다. 상원 표결은 심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조항에 대한 찬반으로 읽을 수 없다. 구글의 말레이시아 약속은 기업 차원의 전력 사용료·직접 연결 비용 부담이다. 소프트뱅크의 손실은 **전력 설비 조달이 데이터센터 사업의 재무 위험**이라는 것을 숫자로 보여 줬다.

국내는 아직 두 조각이 따로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입지와 통과 여부를 정하고, AIDC 특별법 시행령(입법예고 대기)은 면제 상한과 인센티브를 정한다. 둘 사이에 **계통 증설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가 비어 있다. KT 1GW, 네이버 200MW 같은 계획이 평가 대상에 들고 나는 기준이 산정 단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제6호)도 그대로다. 미국 법안의 '대형 시설 비용 부담 확대'든 싱가포르식 'PUE·WUE 연동'이든, 시행령 의견수렴에서 비용 분담 조항을 먼저 묻는 것이 순서다.

일본 미국 EU · 영국 국내 합작사 설립 합의(발표) · FCC 접수 공고(의견 12. 1.) · 발사 결과

2026. 11. 9. - 15.

D2D, 돈과 주파수는 누가 맡나 — 일본·미국·유럽의 서로 다른 선택

제5호는 FCC의 위성 직결통신 개정안을, 제6호는 SpaceX의 지상망 준비를 다뤘다. 이번 주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일본의 모델이 구체화됐다. 라쿠텐그룹과 AST SpaceMobile이 합작사 설립에 합의했고(11월 중 설립 예정), 일본 정부는 약 3년간 최대 1,480억 엔을 지원한다. 같은 주 FCC는 SpaceX의 800MHz 지상 면허 546개 인수 신청을 접수했다. 발사체 이상으로 아마존 위성 40기의 궤도 투입은 실패했다.

일본 — 국가 지원형

- **Rakuten AST(11. 9. 설립 합의, 11월 중 설립 예정)**: 라쿠텐 51%·AST 49%. 라쿠텐모바일의 1.7GHz 이통 주파수로 위성 D2D. 정부 J-LEO 사업에서 약 3년 최대 1,480억 엔(CIAJ 통해 집행). 2029년 3월 말 운용 목표
- 궤도 위성이 13기뿐이라 24시간 커버리지는 아님. 기존 위성 문자 서비스는 연내 상용 환경 시험, 당분간 추가 요금 없음
- **NTT 연합(11. 9.)**: NTT·도코모비즈니스·미쓰비시전기·MUFG·일본정책투자은행, 메가 군집 사업화 검토 MoU(통신·관측·우주 데이터센터). 금융기관 2곳이 처음부터 참여
- 라쿠텐 3분기: 1,105만 회선, KDDI 로밍 트래픽 35% 감소, 영업손실 287억 엔(100억 엔 개선)

유럽 — 이통사 공동

- DT·Orange·Telefónica·Vodafone, 2GHz MSS 대역 **3개 블록 중 1개** 공동 입찰 의사 확인(11. 9.)
- Vodafone IoT·Skylo, 별도 단말 없는 NB-IoT 위성 서비스 상용(11. 9.)
- BT, Starlink 결합 농어촌 상품 "출시 준비 끝났지만 보류" — 우크라이나 Starshield 제한 논란 때문(FT). 우크라이나는 11월 들어 두 번째 제한을 주장, SpaceX 부인

미국 — 지상망 매입형, 그리고 발사체

- **FCC 접수 공고(11. 10.)**: SpaceX의 Grain 800MHz 면허 546개(최대 14MHz 페어, 인구 약 100%) 인수 신청. 의견 12. 1., 반박 12. 8. '승인'이 아니라 **접수**. 승인 시 구축 의무·D2D 조건이 붙음
- **상위 C-밴드 경매 확정(11. 13.)**: 2027. 4. 27. 시작, 160MHz, 신청 마감 2027. 1. 20. SpaceX의 '위성 커버리지로 구축 의무 충족' 요청은 거부
- **AST**: 상시 D2D에 필요한 위성 45기 목표를 2026년 내에서 **2027년 중반으로 연기**. 자체 로켓 'Blacklift' 개발 발표(2028년 말 첫 발사), 시장은 회의적
- **Vulcan 실패(11. 15.)**: 발사체 이상으로 Amazon Leo 위성 40기 궤도 투입 실패, ULA 첫 완전 실패. 아마존은 7월 중간 배치 기준(1,616기)을 이미 놓쳐 조건부 면제 상태, 최종 의무 3,232기(2029. 7.). 다음 발사 11. 23. Ariane 6
- **Starship 15차(11. 13.~14.)**: V3 Starlink 26기 배치, 선체 첫 타워 포획. V3는 V2 대비 다운링크 약 10배
- FCC 비면허 대역 D2D 개방안에 SpaceX·AST 환영, Wi-Fi·케이블 진영은 기존 이용 보호 요구

표 4. D2D를 세우는 세 가지 방식 — 돈 · 주파수 · 위성을 누가 대나

방식	사례	재원	주파수	위성 · 발사
국가 지원형	Rakuten AST(일본, 설립 합의)	정부 최대 1,480억 엔	이통사 1.7GHz	AST 위성, 2029. 3. 목표
지상망 매입형	SpaceX Starlink Mobile(미국)	자체 조달(면허 인수 추진)	지상 면허 인수 신청	자체 Starship, V3 배치 중
이통사 공동	EU 4사 2GHz MSS	사업자 공동	MSS 1개 블록	AST 제휴
한국(검토 단계)	—	우주청 저궤도망 128~512기 안	D2D 대역·조건 미정	누리호 연 1회, ITU 신청 12월 목표

평가

세 주에 걸쳐 D2D의 모델이 셋으로 갈렸다. SpaceX는 지상 주파수 면허 인수를 추진하고 자체 발사체를 활용한다. 유럽 4사는 MSS 대역 공동 입찰을 추진한다. 일본은 **라쿠텐그룹이 과반 지분을 갖는 합작사에 정부 재정과 AST의 기술·투자를 결합한다**. 같은 날 NTT 연합이 국산 군집 검토를 시작했으니, 일본은 두 길을 동시에 가는 셈이다.

이번 주는 발사체가 변수라는 것도 보여 줬다. AST는 위성 45기 목표를 반년 넘게 미뤘고, 아마존은 발사체 이상으로 위성 40기를 궤도에 올리지 못해 배치 의무 압박이 커졌다. 그 사이 SpaceX만 V3 위성과 선체 회수를 함께 성공시켰다. 국내 저궤도망은 발사체가 가장 큰 병목(우주청장, 10월)이고, D2D는 대역과 조건이 아직 없다. 일본식 '정부 지원 + 이통사 주파수 + 해외 위성 기술'은 독자 군집 구축보다 빠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내 적용에는 주파수 공동사용 가능 여부와 승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12월 ITU 신청과 함께 **어느 길을 먼저 갈지**를 정할 때가 됐다.

출처: ケータイWatch(2026.11.09, 11.13) · Light Reading(11.09) Rakuten AST · 라쿠텐 실적 · ケータイWatch(11.09) NTT 연합 · Policy Tracker(11.09) EU 4사 · Advanced Television · Light Reading(11.09) Vodafone-Skylo · Light Reading · Advanced Television(11.10-11) BT · Benton(11.13) Starshield · C114 · Total Telecom(11.11) · Light Reading(11.12) FCC 800MHz 접수 · Broadband Breakfast · Light Reading(11.13) C-밴드 경매 · Broadband Breakfast(11.09) · Light Reading(11.09) AST · Spaceflight Now(11.15) Vulcan · Space.com · AP(11.14) Starship · Broadband Breakfast(11.11) 비면허 D2D

멕시코 · 남아공 일본 미국 국내 비교 관보 고시(확정) · 심의회 답신(제도 정비 전) · 의견수렴

2026. 11. 9. - 14.

멕시코는 사용료를 낮추고, 일본은 재면허를 손본다 — 사용료 인하와 재면허 심사, 각국의 다른 선택

멕시코가 주파수 연간 사용료 12% 인하를 관보에 올렸다. 2022년 사업자가 비용 때문에 주파수를 모두 반납한 뒤 나온 법 개정이다. 일본 총무성은 휴대전화 무선국의 '일제 재면허' 제도를 서두르겠다고 했고, 재면허 심사에 사업계획 수치 목표를 넣는 안에는 사업자들이 반발했다. 국내 할당대가 배분 고시는 12월 31일 만료되고, 2028년에는 3.5GHz 재할당이 있다.

대가 — 내리거나, 조건을 걸거나

- **멕시코(11. 13. 관보)**: 800MHz·PCS·AWS·1.4/2.5/3.5GHz 연간 사용료 12% 인하, 2027. 1. 1. 시행. 600·700MHz는 동결. 커버리지 의무 이행에 연계한 사용료 감면도 추진(DPL News). 2022년 Movistar는 비용 부담으로 주파수 전량 반납
- **남아공 ICASA(11. 11.)**: 750·800·1500·2300·3300·3500MHz와 무산된 WOAN(도매 전용 공공망) 묶 80MHz 재배정 의견수렴, 11. 30. 마감. WOAN 종료 확정
- **케냐**: Airtel, 3.5GHz 100MHz를 25년 6,500만 달러에 확보(11. 2.)
- **미국**: 상위 C-밴드 경매 2027. 4. 27. 확정, 위성 이전 보상 43.3억 달러·인센티브 최대 63억 달러·항공 고도계 교체 57억 달러를 한 패키지로. 카 위원장은 낙찰액 300억~600억 달러 전망
- 美 타워사 "법률로 정한 주파수 공급 목표와 경매 일정이 투자 예측성을 준다"(American Tower, 11. 13.)

일본 — 재면허 제도 정비

- **총무성(11. 12.)**: 정보통신심의회 '전파 유효이용' 일부 답신 수령. 휴대전화 등 무선국의 **일제 재면허** 제도를 서둘러 정비. 대상 대역·세부는 첨부 미확인
- **사업자 반발(11. 5. 결과 공개)**: '동시 재면허 심사' 보고서안에 의견 27건. 라쿠텐 "향후 사업계획 심사를 근본 재검토하라", 소프트뱅크 등 "사업자별 수치 목표 반대". 위원회는 사업자 의견을 반영한 수정 없이 기존안 유지
- 800MHz 소출력 광대역 무선국을 '등록국'으로 운용(허가 간소화), 디지털 MCA 종료(2029) 대비

한국 — 연말이 첫 고비

- 할당대가 배분 고시(정보통신진흥기금 55%·방발기금 45%) **12. 31. 만료**. 의원실은 2011년 이후 배분 근거 설명이 없다고 지적(제5호)
- 재할당 전용 산정식이 전파법에 없어 신규 할당 규정 준용. 2028년 3.5GHz 재할당 전 정비 요구
- 5G SA 전환이 2026년 재할당 조건, 기한 12. 31.(02면)

표 5. 주파수 사용 대가와 심사 조건 — 국가별 접근

국가	대가	조건 · 심사	상태
멕시코	연간 사용료 12% 법정 인하	커버리지 의무에 연계한 감면	관보 고시, 2027. 1. 시행
일본	(재면허 제도 정비 중)	사업계획·수치 목표 심사안, 사업자 반발	답신 수령, 정비 착수
미국	경매 + 이전 보상 패키지	구축 의무(위성 대체 불인정)	경매 일정 확정
남아공	경매 예정	경쟁 영향 평가 선행	의견수렴 11. 30.
한국	신규 할당 규정 준용, 배분 55:45	5G SA 전환 등 조건 부과	배분 고시 12. 31. 만료

평가

멕시코는 높은 주파수 사용료로 사업자가 주파수를 반납한 뒤 법으로 사용료를 낮췄다. 더 눈여겨볼 점은 커버리지 의무와 사용료 감면을 연결한 조항이다. 일본은 다른 질문을 다룬다. 재면허 때 **사업계획과 투자 수치를 심사 기준으로 넣을 수 있는가**다. 사업자들은 반발했고, 위원회는 수정 없이 기존 안을 유지했다. 미국은 대가(경매)·보상·구축 의무를 한 패키지로 묶고, 위성으로 구축 의무를 대신하겠다는 요청은 거부했다.

국내는 세 질문이 한꺼번에 와 있다. 재할당 대가를 무엇으로 산정할지, 할당대가를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지, 재할당 조건(SA 전환)을 어떻게 점검할지다. 연말 배분 고시 만료와 SA 조건 기한이 같은 날이다. 2028년 3.5GHz 재할당 전에 **산정 원칙을 법률에, 조건 심사 기준을 시행령에** 두자는 요구(제5호)가 있다. 일본의 무선국 재면허는 국내 재할당 대가 산정과 제도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방식은 참고할 수 있다. 멕시코의 사용료 인하와 커버리지 조건의 결합, 미국의 경매·보상·구축 의무 패키지도 비교 대상이다.

출처: DPL News(2026.11.13, 09.09) 멕시코 · Developing Telecoms(11.11)·Policy Tracker(11.12) 남아공 · TechAfrica News(11.02) 케냐 · Broadband Breakfast·Light Reading(11.13) C-밴드 · Inside Towers(11.13) American Tower · 総務省(11.12) 전파 유효이용 답신 · MediaNama World(11.09) 재면허 의견 결과 · MediaNama World(11.10) 800MHz 등록국 · 디지털데일리·ZDNet(10.28) 한준호 의원(제5호)

기타 소식 ① 국내 정책·시장

국내 소식 9건

이통 실적
국내 · 11. 10.

KT 3분기 매출 6조 9,975억 원(−1.8%)·영업이익 5,053억 원(−6.1%), 3사 중 유일하게 매출·이익 동반 감소. 무선 매출 −4%

해킹 사태 뒤 가입자 이탈·보상 영향으로 보인다(추정). 2028년까지 자사주 1조 원 매입. 보상·위약금 면제의 재무 효과는 국회·방미통위 사후 점검 자료가 된다.

기업 분할
국내 · 11. 9.

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 분할(데이터센터·해저케이블을 'SK호라이즌'으로) 인가 심사. 의견수렴 11. 30.까지

방미통위 변경허가(12월 의결)와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인가 절차가 확인됐다. 분할 뒤 통신재난 대응과 해저케이블 보호 책임을 어느 법인이 맡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료방송
국내 · 11. 10.-15.

딜라이브도 CJ ENM 4개 채널 송출 종료 추진, CJ ENM은 "수용 어려워"(11. 12.). '선계약 후공급' 원칙은 2021년 이후 5년째 유예

LG헬로비전에 이어 두 번째. 대가 산정 기준 검토위원회는 2024년 출범 뒤 합의 없이 멈췄고, 업무는 방미통위로 넘어갔다. 연내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에 기준과 일정이 담기는지가 다음 고비.

방송 소유
국내 · 11. 12.-13.

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청문 신속 재개 촉구 의결(유진 측 중지 요청 기각). 한상혁 前 방통위원장 'TV조선 재승인 점수' 1심 무죄

청문 다음 기일은 항소심(12. 18.) 뒤인 12. 22. 방송 소유 변경 승인을 사후 취소할 수 있는지, 재승인 심사의 독립성 논쟁이 함께 걸린다.

해양 공공망
국내 · 11. 12.

해양 안전 통신망(LTE-M) 음영 약 965㎢, 상용망은 해안 기지국 2km 밖에서 품질 저하. 보완용 멀티홉 중계망 도입은 멈춰 있음

수색 드론 운용이 제한된다. 위성 D2D·저궤도 위성을 공공 해양망 보완 수단으로 넣을지 논의할 근거.

시험장 전파
국내 · 11. 15.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대책에 '전파탐지기' 도입 추진, KCA가 개발 중.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수가 계기

시험장 전파 '차단'은 전파법상 엄격히 제한돼 '탐지'로 간다. 수능 AI 안경 대응(제3호)에 이어 탐지 장비 운용 근거가 과제. 美 FCC는 11. 19. 교정시설 전파 차단 규칙을 표결한다.

위치 데이터
국내 · 11. 11.

SKT, 기지국 위치데이터 플랫폼 '지오비전 퍼즐' API 연말 종료. 인력은 AI 국책과제로 이동

지하철 혼잡도 안내 등 고객사 서비스에 영향. 통신 데이터의 공공 활용이 통신사 사정으로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공급 안정성 문제.

지도 반출
국내 · 11. 13.

정부, 구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조건 이행 결과 보고: 군사시설 가림·좌표 삭제 확인

조건부 반출 허가의 사후 점검이 실제로 돌아간 첫 사례. 공간정보 보안과 디지털 통상(美 USTR 지적)이 함께 걸린다.

연구망
국내 · 11. 12.-13.

KOREN 31주년: 'KOREN 6.0'은 백본 1.6T·지역망 400G 증속 계획. AI-RAN 얼라이언스 서울 총회(연세대), 과기정통부 AI-RAN 서밋

소버린 AI 네트워크·AI-RAN 실증 기반으로 연구시험망 역할을 넓히려 한다. 2027 예산 심사에서 증속 예산 반영 여부가 관건.

출처: 전자신문·아이뉴스24(2026.11.10) KT 실적 · 전자신문·디지털데일리(11.09) SKB 분할 · 전자신문·뉴시스(11.10, 11.12, 11.15) 딜라이브·선계약 · 아시아투데이(11.13)·전자신문(11.12) YTN·한상혁 · 전자신문(11.12) LTE-M · korea.kr·뉴시스(11.15) 전파탐지기 · 전자신문(11.11) 지오비전 · 과기정통부(11.13) 구글 지도 · 전자신문(11.12-13) KOREN·AI-RAN

기타 소식 ② 해외

해외 소식 8건

ITU
도하 · 11. 12.-16.

PP-26 지도부 선거: 사무총장 보그단-마틴 재선(173표 중 164표), 전파통신국(BR) 국장 에릭 푸르니에(프랑스 ANFR), 사무차장 다르위시(바레인), 표준화국장 오노에(일본) 연임. RRB 12명·이사국 선거는 11. 16.(한국 RRB 후보 출마)

BR 국장과 RRB는 저궤도 위성 신청 심사와 WRC-27 D2D·상위중대역 의제 운영을 맡는다. RRB·이사국 결과는 다음 호에서 다룬다.

규제기관
미국 · 11. 10.-13.

FCC 위원 후보 투만(Thumann Severs) 인준청문회. 민주당 "고메스 재지명 없는 단독 처리 반대", 1982년 정당 균형 조항 논쟁. 상무위 표결 11. 18.

인준되면 공화 3:민주 1. 고메스 퇴임 시 '공화 3명 정족수'의 적법성이 다퉈진다. 방미통위 '2인 체제' 의결 소송과 같은 구조(제6호).

구리망 종료
미국 · 11. 15.-16.

AT&T(18개 주, 약 9만 명)·Verizon(옛 Frontier 8개 주)이 구리 전화·DSL 중단 개시. 승강기 비상전화·화재경보·카드결제 단말 전환이 과제

'대체 서비스가 있으면 승인'하는 FCC 방식. 국내 PSTN 종료와 시내전화 보편역무 조정, 비상통신 장비 전환 책임의 비교 사례.

보편 서비스
미국 · 11. 10.-13.

USTelecom, 차기 의회에 "USF 분담을 대형 빅테크로 확대" 요구. BEAD 추가 라운드의 '위치당 비용 상한'으로 28개 주 광 비중 하락 전망

망이용대가·보편역무 분담 확대 논의와 같은 축. 보조금에 비용 상한을 두면 위성·고정무선으로 돈이 옮겨 간다.

유선 재편
영국 · 11. 11.-14.

CMA의 nexfibre–Netomnia 잠정 불허 뒤 VMO2 광 구축 중단, Hyperoptic 인력 10% 감축, CityFibre는 통합 반대. BT 인력은 2030년 7.5만~8만 명으로(9월 9.96만). 최종 결정 12. 15.

합병 심사가 망 투자 중단으로 바로 이어진 사례. SKB 분할 인가와 유선 설비 경쟁 정책 비교.

ISAC · 드론
EU · 스웨덴 · 미국 · 11. 11.-13.

EU 집행위, 이동통신망 기반 '이중용도 드론 탐지' 시범 공모. 에릭슨은 ISAC 드론 탐지 시스템 공개, Nokia Federal은 美 전쟁부 ISAC 사업 수주

통신망 센싱이 안보 인프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6G ISAC 제도화 때 센싱 신호의 무선국 용도, 군·경 활용 근거, 위치정보 처리 근거가 함께 필요하다.

AI 단말 규제
중국 · 11. 6. 공개

MIIT, AI 에이전트 탑재 단말의 진망(망 접속 인증) 관리 강화 통지: 에이전트 고유 식별코드, 사기 위험 평가, OTA 업그레이드 사전 신고. 앱 마켓은 '에이전트 호출 동의 여부' 신고

AI 에이전트를 단말 인증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첫 사례. 국내 전파법 적합성평가와 AI기본법 시행령 사이에 '단말 내장 에이전트'를 누가 규율할지 공백.

트래픽
영국 · 독일 · 11. 13.

GTA VI 사전 다운로드로 Openreach 하루 트래픽 +33%(378PB), DE-CIX 프랑크푸르트 22.3Tbps 신기록. 11. 19. 출시일 패치로 또 급증 예상

대용량 콘텐츠의 트래픽 급증은 망 비용 분담 논리와 분산 배포(사전 다운로드·CDN) 효과를 함께 보여 주는 데이터.

다가오는 일정

- 11. 16. ITU PP-26 RRB·이사국 선거 ·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 · 국회 예결위 조정소위
- 11. 18. 美 상원 상무위 투만 FCC 위원 인준 표결
- 11. 19. FCC 11월 회의(드론·대드론 주파수, 교정시설 전파 차단) · 유럽의회 EU 우주법 위원회 표결
- 11. 23. Amazon Leo 36기 Ariane 6 발사 · 11. 27. ITU PP-26 폐막
- 11. 30. SKB 분할 인가 의견 마감 · 남아공 ICASA 의견 마감
- 12. 1. FCC SpaceX–Grain 800MHz 의견 마감 · 12. 2. 예산안 법정 기한
- 12월 첫째 주 SKT·LGU+ 5G SA 개시 · 12월 슬라이싱 기준 공개 · 방미통위 SKB 변경허가 의결
- 12. 10. NTIA 7GHz 연구 공개 · 12. 15. 英 CMA nexfibre 최종 결정 · 12. 22. YTN 청문
- 12. 31. 할당대가 배분 고시 만료 · 5G SA 재할당 조건 기한

출처: ITU(2026.11.12-13) · 総務省(11.14) PP-26 · Roll Call · TheDesk(11.10) · Inside Towers(11.13) 투만 · Cord Cutters News(11.14) 구리망 · Inside Towers(11.10, 11.12) USTelecom · BEAD · Light Reading(11.11) · ISPreview(11.12) · Telecompaper(11.14) 英 유선 · Telecompaper(11.12) EU 드론 · Policy Tracker(11.11) 에릭슨 · Fierce(11.13) Nokia Federal · MIIT(11.06) 통지 · ISPreview · Telecompaper(11.13) GTA VI